



미 증시, 3 월 50bp 인상 불안 등으로 급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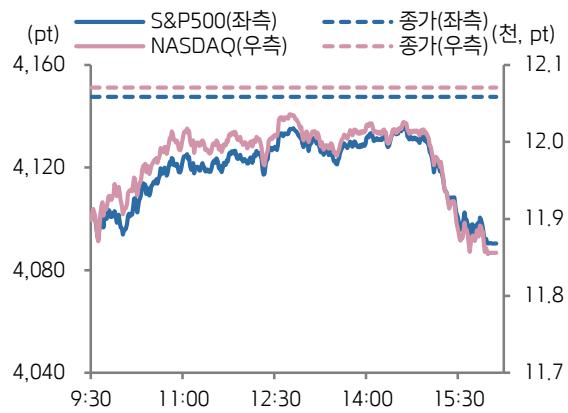
16 일(목) 미국 증시는 1 월 생산자물가 컨센 상회, 실업지표 호조 등이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며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 낙폭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 후반 들어 블라드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의 3 월 50bp 인상 시사성 발언이 재차 주가에 부담을 가하면서 끝내 1%대 급락세로 마감(다우 -1.3%, S&P500 -1.4%, 나스닥 -1.8%).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2.2%), 기술(-1.8%), 커뮤니케이션(-1.6%), 소재(-1.2%) 등 전업종이 약세.

제인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 월 FOMC 에서 자신은 50bp 인상을 주장했다고 밝힌 가운데, 3 월에도 50bp 인상을 지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 동시에 강한 경제와 고용시장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선제적인 정책들이 2023년을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 또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억제하지 못한다면 1970년대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3 월 FOMC 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본인들의 금리 결정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 이어 연내 금리인하 계획이 없다면서, 1 월 CPI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갈 것이라는 결론을 빨리 내리면 안된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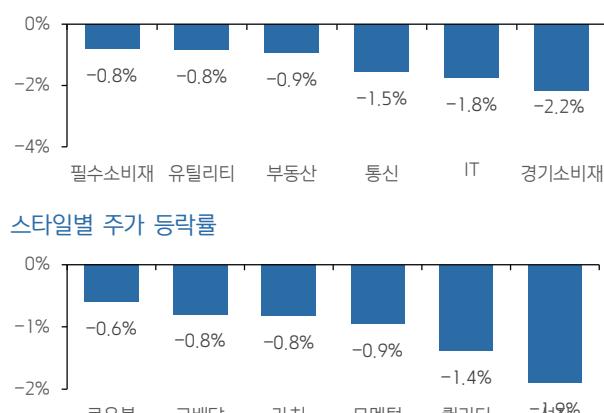
미국의 1 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는 6.0%(YoY)로 전월(6.5%)에 비해 둔화됐으나, 예상치(5.4%)는 상회. 근원 생산자물가도 5.4%(YoY)로 전월(5.8%)에 비해 하락했지만, 예상치(4.9%)를 상회. 전월대비(MoM)로도 헤드라인과 근원이 각각 0.7%(예상 0.4%), 0.5%(0.3%)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지난 소비자물가에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는 모습.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19.4 만건으로 전주(19.5 만건) 및 예상치(20.0 만건)을 하회. 반면, 4 주 이동평균 실업수당청구건수는 189.5만건으로 전주(189.0만건)에 비해 소폭 증가. 2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24.3으로 전월(-8.9) 및 예상치(-7.4)를 대폭 하회했으며, 신규주문(1 월 -10.9 → 2 월 -13.6), 기업환경(4.9 → 1.7), 고용(10.9 → 5.1) 등 주요 세부 항목들이 모두 부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75.48	+1.96%	USD/KRW	1,284.77	+0.18%
코스피 200	324.10	+1.92%	달러 지수	104.03	+0.1%
코스닥	784.71	+2.51%	EUR/USD	1.07	-0.15%
코스닥 150	1,136.02	+3.91%	USD/CNH	6.87	+0.09%
S&P500	4,090.41	-1.38%	USD/JPY	133.94	-0.16%
NASDAQ	11,855.83	-1.78%	채권시장		
다우	33,696.85	-1.26%	국고채 3년	3.512	+0bp
VIX	20.17	+10.64%	국고채 10년	3.480	-0.7bp
러셀 2000	1,942.21	-0.96%	미국 국채 2년	4.640	+0.9bp
필라. 반도체	3,055.24	-2.48%	미국 국채 10년	3.863	+5.8bp
다우 운송	15,209.47	-1.23%	미국 국채 30년	3.916	+7.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7.24	+0.4%	WTI	78.08	-0.65%
MSCI 전세계 지수	652.76	-0.01%	브렌트유	84.67	-0.83%
MSCI DM 지수	2,815.45	+0.1%	금	1845.5	+0.01%
MSCI EM 지수	1,004.87	-0.95%	은	21.57	-0.03%
MSCI 한국 ETF	61.45	+1.09%	구리	412.2	+2.7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0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8.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나스닥 등 성장주 중심의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2. 테슬라 리콜 보도가 국내 이차전지 투자심리에 미치는 여파
3. 환율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강도 악화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개장 전 발표된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물가(yoy 6.0%, 예상 5.4%)와 예상치를 하회한 실업수당 청구건수(19.4 만건, 예상 20 만건) 결과에 미 증시는 하락 출발. 생산자물가지수 같은 경우 1 월 소비자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천연가스, 휘발유 등 에너지 부문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했다는 판단 및 YOY 둔화 추세는 유효하다는 해석, 그리고 강력한 고용지표 역시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합권까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이후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와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 월 FOMC 에서 50bp 인상을 주장했었고, 3 월에도 50bp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시장은 급격히 하락폭을 확대. 그러나 두 위원 모두 올해 FOMC 투표권이 없고, 불라드 총재가 제시한 적정 금리 레벨은 5.375%로 현재 컨센서스인 5.25%~5.5%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3, 5, 6 월 25bp 인상 시나리오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Fed Watch 상 해당 발언 이후에도 3 월 FOMC 25bp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80%대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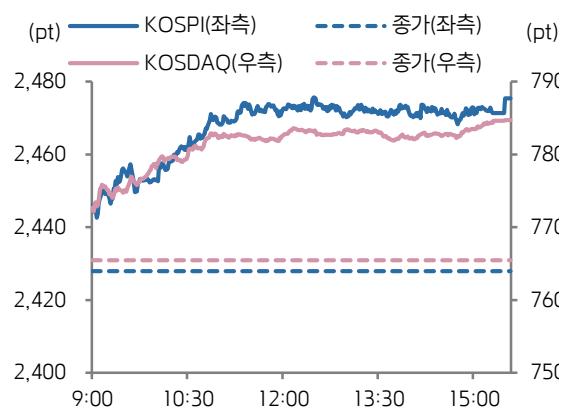
그럼에도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연고점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성장주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부담으로 작용. 금리와 주식시장이 함께 상승하는 환경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통해 시장의 과열을 제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 월 물가지표 확인 전까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 미 증시는 금요일 옵션 만기일,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일에도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존재.

17 일(목) 국내증시는 미국 소비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긴축 정당화 우려에도 나스닥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 경기 연착륙 기대감, 전일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KOSPI +1.96%, KOSDAQ +2.51%).

최근 원/달러가 1,210 원에서 1,280 원대까지 급등, 달러/엔과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음. 엔화의 약세는 BOJ 신임 총재로 지명된 우에다의 성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에 기인. 이번주에 발표된 영국, 유로존의 1 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파운드화, 유로화는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지수에서 유로화 다음으로 비중이 큰 엔화의 약세가 최근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 원/달러의 약세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엔화 흐름 및 BOJ 정책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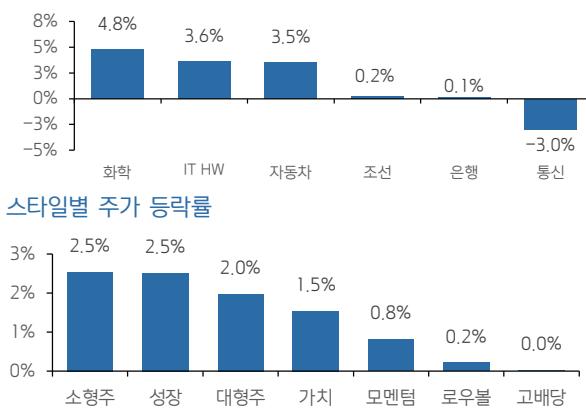
한편 연초 이후 3 일 이상 순매도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전일 코스피, 코스닥 각각 200 억원, 1600 억원 가까이 순매수. 1월 대비 둔화되기는 했지만 순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와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기저에 있음. 전일 삼성물산의 3 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및 5 년간 자사주 전량 소각 보도 직후 장중 5%대까지 상승폭을 확대.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국면에서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대형주들의 주주환원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올해 내내 주목할 필요가 있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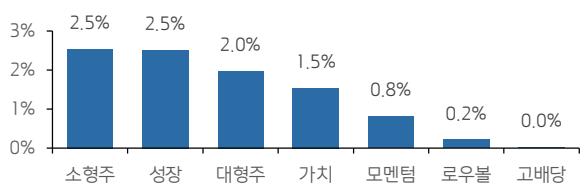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